

4. 南北 交易 3억 달러 近接과 課題

- (南北 交易 3억 달러 突破) 95년 8월 현재 南北 交易 承認 실적이 2.2억 달러에 달해 今年 中 3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交易에 대한 北韓의 거부감 해소) 북한이 반입하는 경우 북한 내부에 미칠 영향 때문에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따라서 原產地 表記 問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對北 交易 許可 節次의 간소화) 대북 교역에 따른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기업들의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며, 이는 우리 기업들이 대북 교역을 꺼려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許可 節次와 要求 書類의 簡素化가 절실히 요구됨
- (運送 體制의 整備) 최근 남북한 항구간 직접 운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비가 너무 비싸서 운송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교역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남북한의 해상 및 육로 運送 體制가 정비되면 비용절감 효과로 인해 교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金融 決濟 制度 완비) 중개상을 통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나, 남북한간에 銀行 決濟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외 중개상을 개입시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 그러므로 남북 교역의 결제를 전담할 취급 기관의 설치가 요구됨

95년도  
남북 교역  
예상액은  
3억 달러 수준

- 남북한 간 물자 교역이 2~3년 전까지 정설이 되었던 2억 달러 정체를 뒤엎고 3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음
  - 1995년 1월부터 8월까지 남북 물자 교역 承認 실적은 2억 1천 7백만 달러로, 1994년도 同期間에 비해 59.6%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1995년도 남북 물자 교역은 3억 달러 수준에 近接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94년 10월 北美핵문제 타결과 끝이은 정부의 南北 經協 活性化 措置에 힘입은바 크지만, 아직도 남북 교역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극복해야만 할 과제가 다음과 같이 常存하고 있음

< 연도별 남북 교역 및 위탁 가공 교역 현황 >

(단위 : 1,000 달러)

구 분	반출입 승인 현황 (95년 8월말 현재)			반출입 통관 현황 (95년 7월말 현재)			위탁가공교역 승인현황 (95년 8월말 현재)		
	반 입	반 출	합 계	반 입	반 출	합 계	반 입	반 출	합 계
1990년	20,354	4,731	25,085	12,278	1,187	13,465	-	-	-
1991년	165,996	26,176	192,172	105,722	5,547	111,269	23	13	36
1992년	200,685	12,818	213,503	162,863	10,563	173,426	556	413	969
1993년	188,528	10,262	198,790	178,166	8,425	186,591	4,385	3,611	7,996
1994년	203,521	25,423	228,944	176,298	18,248	194,546	16,598	11,966	28,564
1995년	168,005 (125,260)	49,459 (11,042)	217,464 (136,302)	138,273 (92,888)	160,541 (9,195)	298,814 (102,083)	17,334 (11,290)	12,290 (7,708)	29,624 (18,998)
총 계	970,361	128,938	1,099,299	792,255	204,580	996,835	38,896	28,293	67,189

자료 : 통일원,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동향」 제50호

주 : 1) ( ) 수치는 1994년도 同期 실적임

2) 반출입 통관 현황 95년도 수치는 對北 쌀 지원을 포함한 것임

남북 교역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 해소

- 南北 交易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상응하는 北韓側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北韓은 제3국 중계상과 교역시 한국으로 재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요구하는 등 표면적으로도 南北 交易을 통제하고 있음
- 우리측 반입의 경우 북한의 외화 수입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으나, 북한이 반입하는 경우 북한 내부에 미칠 영향 때문에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 제품 또는 포장에 한국 원산지 표기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긴급 소요 물자 또는 거래 조건상에 특혜를 줄 경우에 거래가 성립되는 경향이 있음

대북 교역  
허가 절차  
간소화

- 對北 交易에 따른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기업들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이는 또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對北 交易을 꺼려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절차와 요구서류의 간소화가 절실히 요구됨
- 수출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北韓과의 거래임을 입증하는 오퍼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이 도착한 후에도 國內 通關 過程에서 北韓 當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선적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계절적인 상품이나 장기간 보관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의 경우 원산지 확인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음

운송체제의  
정비

- 남북간의 운송은 제3국직선만 가능하며 北韓側 항만 당국에서 요구하는 입항료 및 부대 비용이 비싸고, 선적 물품 준비가 지켜지지 않아 체선료 과다 지불이 비일비재하여 운송료 부담이 큼
- 南北韓 항구간의 정기 항로가 개설되고 소량 물품 수송을 위한 陸路 운송 체제까지 갖추어진다면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 南北 交易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금융 결제  
제도 완비

- 南北韓 은행간에 코레스 협정이 되어 있지 않아 거래 대금의 결제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해외 중계상을 개입시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
- 南北 交易의 決済를 전담할 취급 기관의 역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의 세부 방안 합의와 제도적 실천이 요구됨

(정오영)